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34호 | The Seungni Shinmun |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미 정보당국 UFO 물리적 실체 인정

전북 전주에 사는 이모(48)씨는 최근 '미확인비행물체(UFO)'로 추정되는 오렌지색 불빛 무리를 목격했다. 그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상은 10초 분량으로 발광체 무리가 찍힌 부분은 4초 밖에 되지 않지만, 영상 속 물체는 UFO로 판단된다"고 했다.[출처: 중앙일보 2021. 7.31자, 전주에 뜬 오렌지 불빛 무리… "분명 UFO" 전문가도 흥분했다]

중앙일보에서 캡처

UFO 실체 아는 자가 없다

계속해서 UFO가 촬영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올해 국내에서 목격된 것 중 UFO로 잠정결론이 난 것은 7~8건에 달한다 - UFO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고작해야 미국 정보기관이 실체는 분명 존재하나 다만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체라고 할 뿐이다. 다음은 이투데이 2021.6.28자 기사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UFO)의 존재를 확인하며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2021년 6월 25일(현지시간)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9쪽 분량의 예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보고된 미 해군 조종사들의 UFO 목격 사례 143건을 검증한 보고서다. UFO 대신 '미확인 공중현상(UAP·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고서는 해당 사례들이 식별 오류가 아니라 모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국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UFO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결론 도달 실패는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해당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투데이 2021.6.28자).

미국 정보기관은 UFO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뿐 실체를 잘 모르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UFO를 외계생명체나 외계 문명의 존재의 증거로 고작 생각할 뿐이다.

UFO는 하나님의 분신체다

구세주 조희성님께서는 "UFO는 하나님의 분신체"라고 이미 승리제단 초창기에 밝혔다. "비행접시가 여기 저기 떠다니는데, 그것을 우주인들이 타고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주인이 없는 것이다. 이긴자가 된 다음에 이사람이 여기 저기 날아다녔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비행접시를 보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사람이 바로 비행접시의 장본인인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쪽 별나라에서 저쪽 별나라로,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고 소련이고 어디든지 순식간에 간다. 1초도 안 걸린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몸을 타고 빛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옛 문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기신 완성의 하나님은 완성의 영인 고로 옛날의 그 하나님의 영보다 강한 빛이요, 강한 영인 것이다. 완성의 이긴자는 분신의 영인 것이다. 여기 저기 빛으로 아무데나 나타날 수가 있고, 빛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초창기에도 말했지만 이사람의 분신이 비행접시로 여기 저기 나타나는 것이다. 분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일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UFO

구약성경에도 빛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일이 있다고 적혀 있다. 성경에는 '그룹(cherub)'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겔 1장에 그룹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다. 내용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옮기면 이렇다. "그 四面(사면) 光彩(광채)의 模樣(모양)은 비 오는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榮光(영광)의 形像(형상)의 模樣(모양)이라(에스겔 1:28)" 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이다.

다음 구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온다는 내용이다. "여호와의 榮光(영광)이 聖殿(성전) 門(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에스겔 10:18)",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全能(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音聲(음성) 같더라(에스겔 10:5)" 그룹에서 나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萬軍(만군)의 여호와여 主(주)는 天下(천하) 萬國(만국)의 唯一(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主(주)께서 天地(천지)를 造成(조성)하셨나이다(이사야 37:16)" 또한 그룹은 하나님이 타고다닌다고 하는 구절(삼하 22:8)도 있다.

서울신문 2021. 8.1자 기사에 따르면 『외계 지성체의 방문과 지구 종말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책의 저자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는 "요즘 느닷없는 UFO 보도 때문에 나라 안팎이 시끄러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면서 미국정부가 UFO의 물리적 실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반겼다. "이 비행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비물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행체는 물질적 차원과 그것을 넘어서는 비물질적 차원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는 UFO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UFO의 실체가 구세주 하나님임을 밝힐 정도의 존재라면 그는 성경을 완전하게 아는 이긴자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2〉

"산소를 호흡함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이 산소를 호흡함으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 세상 만물이 산소 때문에 썩고 산소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산다는 소리는 무지한 소리다.

산소를 호흡함으로 사람이 살고있는 것이 아니다. 산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명의 물질을 마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산소를 호흡함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휩싸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산소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이 산소를 마시면 살아난다는 것은 산소 속의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물질을 마시기 때문인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노년의 행복이라는 코너를 마감하면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읜 입장에서, 살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라는 섬기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독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자의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생을 어느 정도 달관한 분은 아시겠지만, 팔만대장경의 그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진리인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다뤄왔지만, 결국은 노년의 행복은 마음에 달렸다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다음 것들은 바늘 가면 실이 따라가듯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먹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으로서 가진 깊은 고뇌이자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편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교훈처럼, 그런 고뇌와 고통이 큰 만큼 더 희망적인 노년의 행복을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년의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가로 막는 것도 아니고, 오대양육대주가 가로막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 즉 나이 들면 으레껏 병 걸리고 늙어서 불행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상에 이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코끼리도 발 밑에 찔린 작은 가시로 시름시름 앓다 죽고, 어마어마한 댐도 개미 구멍만한 틈에서 무너지듯, 인간의 건강한 몸 또한 병 걸리고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단의 틀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어떠한 험한 세상 풍파가 닥쳐도, 결단코 노년의 행복에 대하여 불길한 생각과 나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병장수를 꿈꾸자!

이처럼 금강불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목표는 기어코 달성되고 말 것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인간 최대의 행복인 무병장수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를 두고 한 말입니다.

끝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병장수의 희망을 품고 그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조건을 만들어 무병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목표와 생활습관 식습관 올바른 삶의 풍토를 조성한다면 지상낙원이 이 땅 위에 실현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극락을 꼭 죽어서 갈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지구촌 모든 사람과 평화롭고 자유로이 행복하게 살게 되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자 극락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기자

메타버스와 영생의 세계

오프라인 회의가 사라질줄 모른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 많은 기업이 올해 신입사원 연수에서 메타버스·화상회의 플랫폼 등 온라인 도구를 활용했다는 뉴스다. 이들 기업의 신입사원들은 가상공간에 마련된 강의실, 휴게실, 식당 등을 오가며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교류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1.7.30). 위 내용은 ("하루 12시간씩 일합시다" 이걸 제안한 건 MZ세대였다)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요즘 가장 핫한 콘텐츠는 메타버스(Metaverse)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버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바타는 또 다른 자신으로서 자기의 분신(分身)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이버 세상에서 인류는 이미 분신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논의되는 수많은 영생의 방법론 중 하나가 몸이 죽더라도 컴퓨터에 자신을 업로드하여 로봇이나 컴퓨터 클라우딩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동작되는 것으로서 물리적 육체를 초월하여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죽은 뒤에 클라우드에 다운로드된 자신의 마인드를 로봇에 업로드하여 또 다른 나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들은 죽음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발달된 IT기술로 달래려는 방편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인류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여 영생을 찾아왔다.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이나 회춘의 샘을 찾은 폰세 드 레옹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면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영생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구세주 출현 후 세상이 영생의 세계로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영생의 희망을 절대 놓지 말자.*

구세주 예배 말씀집

신간서적 승리제단 석구용 5

2001년 2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277쪽 / 큰 본문글씨

▶ 구세주 예배 말씀집 5집 펴냄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맡길으로 승리하라!